

# 광주의 공간을 기억하고 음악을 담다

전남대 '인문도시광주' 사업단  
'광주 어쿠스틱' 프로젝트 진행  
24~30일 총 6회로 구성  
정용주·주하주·최고은 등 참여  
24일 전일빌딩서 워크숍도  
미디어아트 배우기 시민미술학교도



임의진 시인      가수 정용주      최유준 교수

전남대 '인문도시광주 사업단'은 광주의 역사, 예술, 탐방 프로그램 '인물 읍스큐라'를 진행해왔다. 문화, 예술, 사회, 경제와 어우러진 광주의 공간을 시민과 함께 탐방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록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광주 지역의인문학자, 예술가, 지리학자와 시민들이 인문도시, 인문지리, 남도소리 등을 주제로 '광주를 읽는 6개의 렌즈' 인문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예술인문공간을 부탁해 공/부/해'를 통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안문화예술공간을 소개했다.

올해는 '광주 어쿠스틱-광주의 장소들' 그리고 음악들을 진행한다. 제17회 인문주간을 맞아 지역의 인디가수와 밴드가 광주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공간을 소개하고 음악으로 담아내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총 6회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치료한 옛 광주적십자병원, 60-70년대 전남방직에 다니던 여직공들이 자취생활을 했던 발산마을, 유라시아 고려인의 정착촌 월곡동 고려인 마을 등 광주의 과거와 현재, 안과 밖을 담고 있는 공간을 촬영한다.

25일에는 민중가수 주하주가 옛 적십자병원을 찾아가며, 26일에는 싱어송라이터 이형주가 전남대 캠퍼스를 찾는다. 또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은 발산마을 별마루(27일)에서 민중가수 정용주는 이매진 옥상과 조선대 캠퍼스에서 공연을 갖는다. 그밖에 건반연주자 강숙향은 양림동 한희원갤러리(29일), 광주 인디밴드 우물안개구리는 월곡동 고려인 마을(30일)을 찾는다.

완성된 작품은 30일 메타버스 상에 구현된 '빛의 도시 Show 온라인 음악제'를 통해 전시할 예정이다.

'광주 어쿠스틱'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워크숍도 오



전남대 인문도시 광주 사업단이 주최하는 '광주 어쿠스틱' 행사가 펼쳐질 옛 적십자병원.

는 24일 오후 4시 전일빌딩 2층 그룹실 1에서 열린다.

대중음악 비평작가이자 월드뮤직 컬렉션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 임의진 시인과 음악평론가이자 '모모는 철부지-전일방송 대학교요제의 기억' 저자인 최유준 교수를 초청해 광주 전남지역의 대중음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다.

'시민미술학교'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6주간 전남대 AI융합대학 B01에서 진행하며 작품은 12월 시민자유대학 거점공간인 장덕동 근대한옥의 내외부에서 진행 열릴 쇼케이스를 통해 선보인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작품 이미지를 전시할 계획이다. 문의 062-961-1110.

작가와 함께 프로젝트 맵핑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한다. 프로젝트 맵핑은 2D 영상 예술을 3차원 실제 공간에 재현하는 미디어아트를 뜻하며,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대상물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시민미술학교'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6주간 전남대 AI융합대학 B01에서 진행하며 작품은 12월 시민자유대학 거점공간인 장덕동 근대한옥의 내외부에서 진행 열릴 쇼케이스를 통해 선보인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작품 이미지를 전시할 계획이다. 문의 062-961-111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총장 월드페스티벌' 궁금하면 오세요

광주관광재단 오늘까지 홍보 부스...체험 이벤트·굿즈 증정 등

광주관광재단은 17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총장로,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추억의 광주 총장 월드페스티벌'에서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고 광주문화관광 캐리터

'오매나'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SNS 팔로우 및 오매나 체험 이벤트, 굿즈 증정 등을 통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스는 5·18민주광장에서 17일까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이와 함께 인근 전일빌딩 245, 2층에 위치한 남도관광센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관광재단은 관광 기념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대별 다양한 관광 굿즈를 증정할 계획이다. 또 오매나 열서 그리기와 에코백 채색 이벤트 등도 운영한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 빛고을국악전수관 20주년 축하무대

내일 국악한마당...9개반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광주 국악의 산실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특별기획 국악한마당 무대를 펼친다.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18일 오후 4시 3분에 걸쳐 특별 공연을 연다.

제1부에서는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 고법, 민요, 판소리 등 9개반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수강생 발표회 경연을, 제 2부에서는 공로패 및 상패 수여 등의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제3부에서는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의 가야금 연주와 윤진철 국창과 명교 박시양의 판소리 적벽가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

관은 국악전용 공연장으로서 지역민들의 국악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이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목요일상설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악문화학교의 경우 개관 이후 현재까지 2만 여명의 주민들이 수료했으며 어린이 국악교실 또한 2800여 명이 수료했다.

해당 20주년 특별기획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연계, 예술의 역할 탐색

광주비엔날레 대담...이숙경 예술감독·작가 나이자 칸 등 참여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예술의 역할을 탐색해보는 공공프로그램을 14일 개최했다.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성적 시각'의 담론에 주목하여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예술의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세계적인 권위의 영국 현대 미술 전문지 '아트리뷰'와 공동주최하고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이 후원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대담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 (How to Exist Together)을 주제로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마크 래폴트 아트리뷰 편집장과 함께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나이자 칸과 타이키 삭피시가 예술로 공존하고 연대하는 실천론에 대해 밀도 깊은 대화

를 전개해나갔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 (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을 하나의 은유이자 원동력, 혹은 방법론으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저항과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번 대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드는 부드러운 변화로 가져오는 물의 힘에서 착안하여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 예술적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경 예술감독은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유사성 뿐만 아니라 개별성 안에 내재하는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담론의 장이 제14회 광주비엔날레"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